

又玄 高裕燮선생 回顧

秦 弘 燮

(東亞大 教授)

흔히 又玄선생을 한국미술사학의 개척자요, 선구자라고들 하나 그에 대한 연구나 평가는 극히 최근에 와서야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가 우리 미술사학의 역사가 매우 짧아서 미술사의 측면에 서서 과거를 돌아보고 선배의 자취를 관심을 가지고 돌이켜 볼 학문적 성숙이 부족했던 데 있었던 것이다. 2년 후면 선생의 50 주기가 되지만 이제라도 우리 민족문화의 선각자요, 지도자였던 한 사람을 조명하게 되었음은 다행한 일이다.

又玄선생은 1905년에 태어나 광복을 1년 앞둔 1944년에 세상을 떠나셨으니 40년이란 짧은 일생을 살다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미술사연구가 남아의 일생을 걸 만한 일이라고 결심하여 이에 몰두하여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였고 그 가운데서 한국미술의 특색이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노력한 분이였다.

선생의 본관은 제주, 아호는 又玄, 汲月堂, 모친은 平康 蔡氏이고 1905년 2월 2일 인천 龍洞에서 태어났다. 인천공립보통학교(현 창녕국민학교)를 거쳐 1920년 보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매우 명석한 두뇌로 사리의 판단이 분명하였고 한편으로는 반항적이고 과격한 성격의 일면도 있어서 3·1운동 때는 국민학교 학생이면서 동네아이들에게 태극기를 그려주고 만세를 부르며 용동일대를 돌아다니다 붙잡혀 3일간 구류를 당하기도 하였다.

보성고등학교에서도 성적은 우수하여 李康國과 1·2등을 다투는 우등 졸업생이었고 졸업생 59명 중 12명이 1925년 경성제국대학에 응시하여 이 두 사람만이 합격하여 예과, 문과 B부에 제 2회 입학생으로 적을 두게 된다. 대학생활의 일면으로는 당시 五明會, 文友會 등의 씨클이 있어서 여기 참가하여 활동하였다. 五明會는 민족정신을 찾자는 취지로 주로 야외에서 토론을 하는 모임이었고, 文友會는 조선인 학생의 친목과 문학활동을 목적으로 한 모임이었는데 年 1회 문예잡지 “文友”를 발간하기도 했다. 선생의 문학적 소질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정신적 갈등을 글로 쓰기도 하고 훌쩍 떠나서 스케치를 하던 습관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선생은 대학에서 법문학부 철학과에서 미학 및 미술사를 전공하게 된다. 당시 철학과 교수로는 아베(安倍, 철학사), 미야모도(宮本, 철학개론), 하야미(速水, 심리학), 우에노(上野, 미학), 다나카(田中, 동양미술사), 후지다(藤田, 고고학)등 저명한 교수들이 있었다. 당시 미학 및 미술사 전공학생은 又玄 한 분이었고 1945년 경성제국대학이 문을 닫을 때까지도 일

본인 학생 한 사람이 더 있었을 뿐이었다고 한다.

1930년 대학을 졸업한 선생은 미학연구실 조수로 임명되었다.

“조수 1년 안에 서양미술사를 하나 쓰고 2년 안에 경주 불국사연구 및 불교미술사를 연구 하자.”

이것은 조수임명의 언질을 받고 쓴 1929년 12월 5일자 일기의 내용이다. 서양미술사는 1930년 7월에 「美學의 史的 概觀」을 발표하였을 뿐이지만 불교미술의 연구는 1931년 7월에 「金銅彌勒半跏思惟像의 考察」을 발표한 이래 폭이 차츰 넓어져 한국의 타포연구에 정열을 쏟게 되었다.

탐과연구의 일환으로 대학소속의 전속 사진사의 협력을 얻어 전국에 산재한 탐을 촬영하여 1934년 그 중간성과로서 「朝鮮의 塔婆寫眞展」이라는 이름으로 대학강의실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朝鮮塔婆概說」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탐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도 1,000여 기가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으며 불상조각과 함께 한국불교미술의 중요한 연구과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에 관한 연구는 오로지 세끼노(關野)같은 일본어용학자들이 專斷하였으나 선생은 양식에 기초한 방법론에 의하여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였으니 일례를 들면 益山 彌勒寺址의 석탑을 일인들이 통일신라시대의 건립이라고 한 데 대하여 그 자체의 양식과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백제 武王 때에 건립된 현존 한국 最古의 석탑이라고 반박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또 하나 주목되는 일은 한국회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일이었다. 이 자료는 뒤에 『朝鮮畫論集成』으로 출간되었지만 그 목적은 한국미술사 집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조선미술사의 출현을 요망하기는 소학시대부터였다고 기억한다. 이것이 내 자신의 원성으로 전화되기는 대학시대 부터이다.”

라고 하여 서양미술사, 불교미술사, 탐과연구를 뛰어넘어 한국미술사의 완성을 향하여 온갖 정열을 기울였으나 그 완성을 보지 못하였다.

1933년 선생은 開城府立博物館長으로 부임한다. 개성이라는 곳은 일본인들에게는 매우 까다로운 곳으로 경찰서장을 제외한 모든 기관장에 조선인이 앉지 않으면 개성사람들은 협력을 하지 않는 곳이어서 府尹부터 은행장을 비롯하여 일본인 출자기관의 長까지도 조선인이어야 했기 때문에 박물관장도 그 관례를 따라 선생이 박탈되었다. 개성박물관장 재직기간 즉 194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년동안 실로 놀라운 연구와 그 결과가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외로운 환경 속에서 넉넉지 못한 생활과 싸우면서 학문에 열중하여 한국문화의 근본과 한국미술의 실상을 밝힘으로써 한국사람이 표현한 미의 실태가 어떤 것인가를 추구해 나갔다. 한국의 문화를 한국사람의 안목으로 연구하여 우리의 문자로 발표하려는 학회인 震檀學會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그의 기관지인 震檀學報에 탐과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화여자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에 출강하는 한편 그때마다 규장각도서관에서 필요한 부

분을 발취하여 資料難을 극복하려 노력하였다.

선생이 발표한 논문은 60여 편에 달한다. 이 많은 양의 논문 속에 흐르는 일관된 방향은 美의 탐구였다. 그것을 위하여 정력을 한 곳에 모았으니 앉으면 생각하고 쓰고, 피로우면 “酒一盞”로 달래면서 “전통이란 결코 이러한 ‘손에서’ 손으로의 손쉽게 넘어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피로써 피를 씻는 악전고투를 치러 ‘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얻으려는 사람이 고심참담 쇠신분골하여 죽음으로써 생명으로써 얻으려 하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오 주고 싶다고 하여 간단히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 하여 곧 이러한 태도가 자신의 악전고투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선생은 1944년 6월 26일 4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필생의 원성이던 『朝鮮美術史』는 서론의 초고를 남길 뿐 완성을 보지 못하였으나 선생의 미술사 연구 방법론에 의한 한국미술사의 연구는 미술사연구의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많은 후학들에게 길을 밝혀 주었고 목표를 제시해 주었으며 의욕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미술사에 관심을 가진 학도들이 적지않이 배출된 지금도 그들은 선생의 글을 읽고 음미하면서 정진한다. 선생이 가신지 반세기가 되었고 필자 또한 선생의 뒤를 따르는 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학문의 깊이가 헤아릴 수 없이 깊음을 깨닫게 한다.

광복이 되고 경성제국대학은 서울대학교로 개편되어 한국인의 대학으로 출발하였을때 “又亥이 있었더라면” 하면서 1년 전에 떠난 벼를 못내 아쉬워 하였다고 故 一石 李熙昇선생은 술회하였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잔병치레를 많이 하였다하나 만년에는 일본의 저명한 문학가인 아꾸다가와(芥川龍之助)가 36세에 죽은데 대하여 “無爲의 내가 더 오래 사는 셈이 된다. 이것은 無爲의 탓으로 더 오래 살게 되었는지 모른다” 또는 “필적이 이와같이 조잡하고 황잡한 것은 수명이 얼마 남지않은 상징화가 아닌가” 또는 “춘추사에서 원고주문이 왔으나 차차 절필함이 가할듯 하다” 등 일기에서 술회하면서도 지금까지의 연구에 매듭을 짓는 듯한 논문을 계속 집필하였다. 급기야 간경변증으로 붓을 못들게 되었다.

선생의 뒤를 이어 광복 후 개성박물관장직을 맡아 선생이 쓰시던 책상과 의자를 그대로 쓰면서 진열장 속의 청자를 보던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 글을 마친다. 이제 많은 미술사학도들이 직접 선생의 강의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여 어찌 선생이 나만의 스승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한다.